

새시대 연변 여성들의 아름다운 풍채 자랑

— '3·8' 분야 연변부녀연합회 '3·8'절맞이 행사 마련

최근 연변주부녀연합회에서는 연길시문화관에서 '힘을 모아 당을 따르고 연변의 새로운 화폭을 함께 그려가자'를 주제로 한 '3·8'절맞이 연변 '3·신'(三新) 분야 여성조직의 여성경제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길림성부녀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왕평, 길림성부녀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호지휘, 연변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통전부 부장인 서기화 등 지도인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신' 분야의 연변부녀연합회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부

녀연합회 조직의 우수성과 다재다능한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 강한 의지와 분투정신, 헌신정신을 보여주기에 힘쓰고 있다. 주최측에서는 주내의 우수 여성사회조직,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여러 여성단체들에서 문예종목을 선보인 가운데 무대와 관람자가 하나되는 흥겨운 장을 만들며 다재다능한 여성들의 풍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허철특약기자



대련시, 조선족군중예술공연 펼쳐



3월 6일,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주최하고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관한 '대련시조선족군중예술단체공연'이 대련시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활동에는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를 비롯해 여러 예술단체의 성원과 관객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료해 따르면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은 황호철 관장의 인솔하에 조선족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해마다 조선족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를 널리 고양하고 있으며 성악, 무용, 악기, 미술 등 감상반을 조직해 광범한 조선족 문예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감정자분회의 대합창 <노래하자 조국>으로 막을 올린 공연은 경쾌한 음악과 멋진 춤들로 제 2고향에서 열심히 살

아가고 있는 대련시 7만여명 조선족들의 정진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아리랑예술단의 무용 <새해의 축복>과 중산구분회의 기악합주 <붉은 해변강 비추네>는 격변기에 힘을 합쳐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정진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민족의 정진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민족의 정진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민족의 정진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

/ 리삼민특약기자



길림시 각계 조선족들 다양한 행사로 '3·8'절 경축



길림시 행사 현장의 한 장면

길림시 : 3월 7일,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회장 리옥란)는 '3·8'부녀절을 맞이하여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다기능홀에서 문예공연, 전통 율놀이, 오락 등 다채로운 행사를 조직했다. 협회 회원들이 공연한 무용 <녀성은 꽃이라네>, 기악연주 <있을 수 없는 그날>, 상모돌리기 등 종목과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문예부의 특별공연 조선족 전통무용 <도라지꽃 만발했네>는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영길현 : 3월 8일, 영길현조선족민속동아리 회원 30여명은 알록달록한 조선민족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오전 11시 동산사회구역 활동실에서 '3·8'부녀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배덕수회원이 작사·작곡한 회가 합창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남성회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헌신하며 고생해온 여성회원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속동아리 회원들이 준비한 전

통무용, 독창, 소합창, 광장무 등 다채로운 공연과 보물찾기, 굴레 던지기, 율놀이 등 전통 오락활동도 진행되어 회원들의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반석시 : 3월 2일,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는 반석시에서 '3·8'부녀절 경축 및 2025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류대진 부회장이 사회를 맡고 전체 회원들의 회가 합창으로 막을 올렸다.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회장 김병희가 '3·8' 부녀절 축하 인사말과 함께 2025년 협회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회장은 "올해도 회원들의 단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구역 발전과 민족문화 계승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노래와 춤, 사랑송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명절 분위기를 더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 차영국기자



사평·료원 조선족로인협회 '3·8'절 기념행사



3월 8일,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와 료원시조선족로인협회는 사평시에서 '3·8'국제부녀절' 맞이 경축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두 협회 회원 및 사회각계 대표 포함 1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두 협회에서 앞심 들여 준비한 노래와 춤 등 10여개 종목의

공연이 펼쳐졌다. 북춤 <붉은 해변강 비추네>, 부채춤 <천리마가 하늘높이 나네>, 무용 <연변인민 모주석을 노래하네> 등 출연자들의 열정적인 무대는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평시민족사무위원회 과장 양진강

은 "이번 행사는 조국의 번영과 민족 단결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행사를 충분히 긍정했다.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회장 신중근과 료원시조선족로인협회 회장 고영애는 "이번 행사를 통해 두 협회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며 함께 발전하겠다."는 포부

를 밝혔다. 특히 92세 고령의 로인과 80여세 로인의 즉흥적인 장끼자랑은 참석자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공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약 두시간 진행된 행사는 민족의 화합과 녀성의 위상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되었다.

/ 김홍철특약기자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 '3·8'절 경축행사 즐겁게

8일,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3·8'부녀절 경축행사 및 2025년도 개학식이 장백현로련대학 6층 회의대청에서 있었다. 이날 경축행사에는 현인대 상무위원회 전임 부주임 전대선, 현당위 통전부, 현부련회, 현민정국, 현로련대학, 장백진변경과출소, 마복구진변경과출소 등 부문의 해당 책임자들이 참가했다.

현부련회 부주석 왕해가 현부련회를 대표하여 "최근년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는 광범한 조선족 녀성회원들을 인솔하여 그녀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하게 수호하고 사회를 위해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왔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금후 협회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부회장이며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회장인 김영희는 행사에 참석한 전체 녀성회원들에게 '3·8'부녀절의 인사와 축복을 전하고 나서 "최근년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는 해마다 '3·8'부녀절이면 경축행사, 문예공연, 율놀이 등을 조직해 녀성회원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날'이면 남성회원들을 위해 야외활동 등을 조직하여 함께 축복했다. 하여 협회는 현재 남녀 회원들이 서로 돕고 배우며 분발 향상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는 계속하여 '로인의 집'을 잘 가꾸고 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이다."라고 피로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협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로인사업에 많은 기여를 해온 최숙순, 김정실 등 8명을 표창했다. 특강, 탐산, 민주, 장송 등 4개 분회의 분회장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 각각 태도발언을 했다.

이어 총협회와 약기대에서 성심껏 준비한 소합창, 조선족무용, 관악합주, 통소합주 등 문예공연과 율놀이 등 오락활동이 펼쳐지면서 녀성회원들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 최창남



집안 다채로운 '3·8'절 행사로 녀성경찰의 풍채 보여줘

제 115회 '3·8'부녀절에 즈음하여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는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경축활동을 정성껏 조직하여 녀성경찰들의 색다른 풍채를 보여주고 대오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한층 더 불려일으켰다.

3월 4일 오전,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의 녀성경찰들은 집안시부녀연합회에서 조직한 취미운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 분야에서 온 녀성들과 함께 경기를 즐겼다. 녀성경찰들의 환한 웃음과 건강한 몸짓은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고 녀성경찰들의 풍채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현장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3월 6일 오전,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애정을 배우고 삶을 해빛으로 가득 채우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심리건강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정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했다. 특강에서 전문가는 생동감 있는 사례 분석으로 과학적인 정서 조절 방법을 녀성경찰들에게 전수했다. 녀성경찰들은 금후의 사업과 생활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긍정적, 라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더욱 충만한 열정으로 사업에 임하는 방법을 배웠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이야기 공유회'에서 몇몇 녀성경찰 대표들은 국경검사 일선에서 군중들에게 세심한 봉사를 제공했던 경험, 가정과 사업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자신의 성장 과정 등을 공유했다. 녀성경찰들의 이야기는 소박하고 진지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차 현장의 경찰들을 깊이 감동시켰다.

이번 '3·8'부녀절 계열 활동은 녀성경찰들의 여가생활을 풍부히 했고 그들의 심신건강과 직업 정체성을 한층 증강시켰다. 근무 1팀 경찰 왕위정은 더욱 드높은 투지와 충만한 열정으로 국경검사 사업에 투신하여 통상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지방경제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정현관기자, 맹효령(孟晓玲), 리풍길(李丰吉), 장거박(张巨博)

